

수도권 확진자 폭증...전국 확대 가능성에 방역 강화

광주시, 관·경 합동점검반 10월 3일까지 음식점·카페 등 방역 점검 전남도, 선별검사소 70곳 운영 선제검사 강화...이동 최소화 당부

수도권에 서민 연일 15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추석 연휴를 타고 확산세가 전국 곳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식품 안전 관련 공무원과 경찰기동대 등으로 구성된 10개반 21명의 관·경 합동점검반이 10월 3일까지 역과 터미널, 변화가 주변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적 모임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영업 제한 시간 준수 등이다.

추석 연휴 기간 생활치료센터 특별운영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소방학교 생활관과 중소벤처기업

홍공단연수원 기숙사 등 2곳에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안전정책관을 총괄 단장으로 각 센터별 공무원, 의료진 등 5개 운영 실무반을 편성,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며 확진자 입소부터 퇴소 시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위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경찰지구대, 협력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상주 근무, 건강 이상 유무 확인,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을 이어간다.

전남도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무료 진단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연일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이동과 접촉이 많은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정상운영하고 선제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2개 시군 보건소와 주요 의료기관 등 57개 선별진료소와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 13개 등 70개를 운영한다. 백양사·섬진강·보성녹차·함평전지 등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4곳에서도 무료 선별진료소도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은 하되 규모는 최소 인원으로 줄일 것을 당부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이 방역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 부모님을 위해 이번 연휴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국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마련한 '인스퍼레이션4' 우주 관광에 참여한 민간인 4명이 우주복을 갖춰 입고 포즈를 취한 모습. 사진 촬영 날짜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남도, 공익형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 도입 첫발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용역 착수...전국 최초

전남도가 농산물 거래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남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16일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와 농협·유통법인, 생산농업인, 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용역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향의 틀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가락시장 경매제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보완해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단계별 발생되는 수수료를 낮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전남도와 건국대 연구팀이 4개월간 진행한다. 용역을 통해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거래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새로운 거래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전남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가상 거래 시뮬레이션을 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집중 검증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매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락시장에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내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최대 규모다. 전국 도매시장 거래량의

34%, 수도권 농수산물 유통량의 50% 규모를 거래하는 등 국내 농산물 기준가격 형성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가락시장 거래량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경매제는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구매자 유통구조로 이뤄져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일 수급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경매 절차에 따른 농산물 거래 시간과 유통 비용 증가 등이 단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 도매시장 법인의 독점적 수탁구조에 따른 공공성 문제와 온라인, 대형 할인점, 직거래 등으로 국내외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애주기별 정책 한곳에... '광주 복지 플랫폼' 10월 개통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복지 플랫폼'이 다음 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복지 플랫폼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홈페이지를 시연하고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 자원, 서비스, 관련 통계, 복지 일자리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광주복지 플랫폼 홈페이지' 시연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복지플랫폼 홈페이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복지시설의 복지사업 맞춤 검색 ▲지도 위치 기반의 사회복지시설 검색 ▲복지관련 세소식 ▲복지 빅데이터분석 및 복지통계 ▲복지 일자리 정보 등의 제공되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19년 6월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제시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70개 혁신과제에 대해 같은해 12월 복지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복지혁신자문위원회, 복지혁신실행 민간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광주복지플랫폼은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복지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은 물론 광주복지의 수요와 공급을 빅데이터화해 분야별 복지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 다양한 복지 정책,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해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복지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추석 연휴 아동급식 지원

광주시는 "추석 연휴 저소득층 등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명절 아동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6537명이 끼니를 거르거나 굶지 않도록 도시락 배달업체 4곳과 급식카드 이용업체인 일반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1930곳의 운영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급식 지원 가맹업체의 영업 여부를 파악해 일자별 이용 가능업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및 5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급식 제공 업소 위생관리 상태와 식품 제공계획 등을 점검해 원활한 급식 지원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간인 4명 지구 밖으로... 첫 우주관광

스페이스X 관광선 타고 575km 고도서 사흘간 궤도 비행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 4명만이 탑승한 우주 관광선이 15일(현지시간) 어둠을 뚫고 날아올랐다.

미국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에 탑승한 이들 여행객은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더 높은 곳에서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며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도는 여행을 한다.

스페이스X는 이날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8시 3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민간인 탑승객 4명을 태운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다. '인스퍼레이션4'로 명명된 이 민간 우주 관광은 사흘 여행 코스다. 탑승객은 1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게 된다.

AP 통신은 전문 비행사가 동승하지 않고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첫 지구 일주 비행이라며 "우주 관광의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비행에 앞서 우주선에 커다란 동형 창문을 달았다. 우주 관광에 맞게 지구를 한눈에 조망하도록 개조한 것이다. 사흘 여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着水)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한다.

스페이스X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우주 관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퇴역한 전직 우주비행사와 사업가 3명을 우주

정거장으로 실어나른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ISS 체험 관광을 하게 된다.

스페이스X가 이번에 도전하는 우주 관광은 지난 7월 성공한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여행과는 급이 다르다.

베이조스와 브랜슨의 우주 관광은 불과 몇 분 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극미 중력'(microgravity) 상태를 체험하는 저궤도 비행이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우주선은 발사 10분 뒤 국제우주정거장보다 160km 더 높은 575km 궤도에 올랐다.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음속 22배인 시속 2만7천359km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비행한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는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잭먼(38)과 일반 시민 3명이 탑승했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 '시프트4페이먼트' 창업주 아이잭먼은 스페이스X에 거액을 내고 우주선 네 좌석을 통째로 샀고 브랜슨과 베이조스에 이어 우주여행에 나선 세 번째 억만장자가 됐다. 나머지 탑승객 3명은 세인트루드 아동 연구 병원의 전문 간호사 해일리 아르세노(29), 애리조나 전문대학 과학강사 시안 프록터(51), 록히드 마틴사의 데이터 기술자 크리스 샘브로스키(42)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처분하기 교환
힘든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장성담 (호) 2분,
3) 140평(분양) 시세 9억	장성 IC. 5분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흥, 모던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010-6670-9800